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3-14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3-14
2021 년 03 월 14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275199331](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275199331)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 년 03 월 14 일

차례

1. [강산도바뀌었건만]	3
2. [자꾸건방지게되지마라]	3
3. [대충너무할말이없어서제목도쓸게없다는제목]	4
4. [자본주의없는게임문화란있을수없을까?]	5
5. [언제나같은파쇼들의근황]	7

1. [강산도바뀌었건만]

지난 3 월 11 일은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가발생한지 10 년째가된날이었다. 체르노빌발전소사고이래최대규모였던후쿠시마사고는유무형의형태로일본사회전체에씻기힘든상흔을남겼으며그여파는아직까지도남아있는상태다. 붕괴되어방사선을뿜어내고있는세월자로는아직까지접근도힘든상태며이를식히기위해매일나오는많은오염수를감당해야한다.

그사고로부터 10 년이란긴시간이지난지금, 우린얼마나배웠고얼마나바뀌었으며얼마나안전해졌는가?

안타깝게도세질문에모두회의적인대답만나올수있을뿐이다. 탈원전을선언했던문재인정부는이전부터뜨거운감자였던고리 1 호기만을폐쇄시켰을뿐마찬가지로낙후된 2 호기의연장은피하고있으며 5, 6 호기의건설을강행하는등내뱉었던말과는정반대의행보를걸고있다. 안전문제또한변한게없다. 조선일보와같은지배층의언론들은항공기가충돌해도끄떡없다며선전포를쏟아내지만실상은한수원이지난해원안위에제출한관리서에조차재해에의한광역손상발생시필수안전기능이유지되지않음이확인되고있고후쿠시마이후계획된후속안전대책이행률은56% 에불과하다. 작년태풍에의한가동중단은미흡한안전상태를단적으로보여주었다대안에너지에대한투자또한미비한상태로민간기업에대한보조금수준에머물러있다.

10 년이면강산도바뀔시간이라고하였다. 하지만강산이바뀔동안지배자들은여전히바뀌지못한모양이다. 다음 10 년동안, 진정으로안전하고평화적인에너지로돌아가는사회에달기위해선민중주도의변혁이있어야만할것이다.

” 후쿠시마참사 10 년’...” 안전한지구에서살고싶어요”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8192&ref=A>

2. [자꾸건방지게되지지마라]

LH 고위간부들이계속해 스스로목숨을끊고있다. 3 월 12 일에는분당에서고위간부가투신했고, 13 일에는과주에서도한고위간부가목을매죽었다. 한곳에서는유서는발견되지않았고, 한곳에서는” 국민께죄송하다. 책임을통감한다” 는내용의유서가발견되었다.

왜자꾸건방지게죽고난리인지이해할수가없다. 주택을담당하는이들이주택혹은택지를가지고장난질을쳐놓고는그에대한책임도지지않

고왜죽어나가는것인가? 자기한사람만죽으면가족들은앞으로그시세차익을이용해잘살수있을것이라는, 한집안의가장으로서가족들에게금전적이득을안겨주어모든책임을다했으니이길로죽하다는판단인가? 그렇다면그것은마지막까지자신의가족만을생각한것이지, 죽는그순간까지도자신의말은바소임을전혀생각하지않았으니그죽음마저도일말의동정마저받을길이없을것이다.

막말로, 잘못을할수도있다. 하지않는것이가장좋겠지만인간이기에잘못을할수있다. 물론잘못한것은다시되돌릴수없지만, 그에대한책임을온전히지고다시올바른방향으로되돌리기위한부단한노력을또할수있기에인간의자유 의지와행동들은승고하다. 하지만자신의잘못, 자신주변의잘못들을책임지지도않고, 잘못을되돌리려는시도조차하지않고죽음으로써자녀들혹은가족에게계층의상승을피하고부의세습을기도하는이들의망종짓거리논재고의여지없이침을뺏어줄수밖에없다.

다시한번말한다. 자꾸건방지게되지마라. 당신들의잘못은모두가좋은환경에서살권리를누리고자하는모든대중이적절한때심판해야할몫이다. 감히죽음으로사죄한다느니하는말을건방지게꺼내지말라. 대중은그런식으로는당신들을용서할마음이전혀없다. 당신들이지금해야할일은잘못되었던일들을바로잡고모든대중이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살수있는방법을, 당신들의통장잔고늘리려고머리굴린그만큼의노력보다더하는것이다. 건방지게자꾸되지마라.

”LH 고위간부경기분당서투신...’ 국민에죄송’ 유서 (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2133251004>

” 파주서도 LH 사업본부간부숨진채발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3035053060?input=1195m>

3. [대충너무할말이없어서제목도쓸게없다는제목]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코레일네트웍스, LG 트윈타워, 뉴대성운전학원에서해고당한 1,000 명의노동자들이민주당박영선서울시장후보선거사무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해고문제에대하여집권여당민주당과박영선서울시장후보가해결하라고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촛불투쟁으로권력을잡았고 180 석의석을확보했지만고달프고고통스러운노동자의삶은바뀐게없다” 고말했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4>

당연하다. 어느당이정권을잡았건, 어떻게그정권을잡았건, 노동자의고통스러운삶은바뀌지않는다. 국가는결국유산계급의집행위원회이자경호원에불과하기때문이다. 국가는결코자기주인님이자본계급의뜻을거스를수없기때문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이라는색깔이다른 4 개의정권이, 투쟁하는노동자에게달랐던것은, 노무현이손배가압류를청구했다면이명박은성을쌓았고, 박근혜가물대포를쏘았다면문재인은집회대오를집에보내고구속영장을보낸것뿐이었던것처럼말이다.

그런데대체왜, 아직도, 정부가, 집권여당이책임지라고하는가. 저들은책임질의지도없고, 책임질역량도없다는것이명약관화한데말이다.

제발, 구걸하지말자. 노동자들스스로의힘으로투쟁하고, 그투쟁으로얻어낸결과를검허히받아안자. 아니. 구걸을하려고해도차라리한푼줄수있는사람한테하자. 노동조합의조직이, 투쟁의역량이, 연대의힘이부족하여강고한투쟁으로승리할수가없을것같다면, 차라리금호아시아나박삼구에게, 한국철도공사손병석에게, LG 그룹구광모에게무릎을꿇고옵소를하자. 그렇게노동자들이스스로얻어낸결과만이, 노동자들에게오롯이남을수있는무언가가아닌가.

정치적이합집산과야합과계급연합은, 그것을전문적으로하는저들이실컷하라고두자. 저들의야합에우리의요구와승리를맡기지말자. 구걸은, 하지말자.

””1000 명해고방치마라”.. 해고노동자들, 박영선에면담요청” :

https://news.v.daum.net/v/20210312115405646?x_trkm=t

4. [자본주의없는게임문화란있을수없을까?]

최근넥슨의메이플스토리라는게임내에서판매중인확률형아이템에대해여러논란이불고있다. 그중가장큰사건은어떤기능은얼핏보면아주낮은확률이지만그래도이론상은나올것처럼묘사되었지만막상공개하니아예안나오는것으로프로그래밍되어있었다는것이다. 좀직설적으로비유하자면돈을걸고카드게임을할때, 즉, 도박을할때밀장빠기를하는것과다를바가없고자본주의체제에맞게말하자면대놓고소비자를기만한것이다.

하지만그렇다면‘공정하게’정보를공개하고확률형아이템을판매하면서, 가상의물질에어마무시한자본주의적가치를부여한다면그것은소

비자기만이 아닌가? 한때 그러한 아이템을 소비도 해봤고 비록 잠깐이지만 그러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일을 해본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되돌아켜 생각해 보면 차마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아이템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임 개발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기도 하면서도, 그렇기에 필자는 더더욱 자본주의의 중요성을 느낀다. 보통은 이런 개발 환경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역설하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문화 콘텐츠 개발에 주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딱히 사회주의자나 아나키스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기 쉽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보다는 탈자본주의의 아나키스트 코뮌에서 문화 콘텐츠, 특히 게임 문화가 어떻게 존재할지 간단한 상상을 같이 그려 보려 한다. 아나키스트 코뮌 사회에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면 무엇이 좋을까? 우선 내가 생각하는 아나코코뮤니즘의 기준으로 개개인이나려는 노동과 학습이 코뮌에 필요한 것이라 인정하면 효율성이나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코뮌 내에서 청소와 요리를 담당한다면 그 노동의 효율성이나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코뮌 내에서 충분히 노동한다고 생각하는 이상 코뮌 내에서 제공하는 의식주 외에도 교육 서비스, 문화 생활 등을 즐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 콘텐츠 생산자 역시 코뮌에서 거부감이 들 정도로 사회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코뮌과 협의하면서 자주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래의 문화 콘텐츠 풀을 상상해 본다면 제작자의 개성이 넘쳐나는 거대한 인디 문화 콘텐츠가 주류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 거대한 프로젝트는 더 이상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인가?” 물론 혁명 직후에는 그럴 수도 있다. 아나키스트 코뮌에 맞춰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은 주목을 많이 받는데 비해, 문화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기존에 생산된 문화 콘텐츠를 카피 레프트에 따라 배포하기, 해당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컴퓨터와 게임기 같은 기기 확보 정도만 주된 관심사로 주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나키스트 코뮌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개개인의 제작자들이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더더욱 큰 프로젝트를 생산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욕구에 동조하는 다른 제작자와 이제 제작자가 속한 코뮌들이 모두 모여 논의와 합의를 한 끝에 거대한 프로젝트 제작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거대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그 프로젝트의 산물은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과 자유 시장의 탐욕으로만 추진력을 얻어 생산된 문화 콘텐츠와 달리 훨씬 사용자 친화적이며서 개성적인 인류 문명의 자산이 될 것이다.

” ‘메이플스토리’, ‘획득 확률 0%’ 아이템 유저에 판매해 논란 ”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110915014429

5. [언제나 같은 파쇼들의 근황]

미얀마를 지배하고 있는 군부 독재, 파쇼 세력들이 여전히 패악질을 벌이고 있다. 이전에는 사상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군부 독재 세력에 의해서 사망한 시위 대만 하더라도 약 100 명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는 외신과 현지 언론에 확인된 숫자를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 실제로는 100 명 이상,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군부 독재 세력에 의해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미얀마 군부를 옹호하는 소위 ‘반제국주의’를 주창하는 파쇼와 동급인 분들이 계시다. 미얀마에서 치러진 총선은 실제로 영터리 주먹구구 선거가 맞으며, 시위대의 등 뒤에는 미제가 붙어 있고, 맹목적인 혐증 감정을 조장한다는 식의 언급을 열변을 토하시며 어떻게든 미얀마 쿠데타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신다. 물론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 독립’을 운운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속셈을 누가 모를 줄 아는가. 결국 아무튼 미얀마 군부는 미제에 반대하는 세력이고, 아웅산 수치를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시위대는 미제에 복무하는 세력이라 한 것이다.

우리아나키스트 연대는 지난 주 일요일, 미얀마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물론 우리는 미얀마 인민 대중 회의의 회민주주의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가하기를 바라며, 노동자 대중이 산업 현장을 통제하며 군부라는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주 독립’을 열렬히 주장하시는 분들과 아마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미제와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에 대해 반대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민중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총을 쏘대는 파쇼 세력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며 더 이상 국가 권력에 의해 죽어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민중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해외 자본주의 세력 (거기엔 물론 남조선도 포함되어 있다!) 에 빌붙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금을 끌어모으지만 ‘반미반제’를 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군부 세력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표명할 것이다.

우리아나키스트 연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미얀마 민중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설령 그 군부가 ‘반미반제’를 걸고서 표명한다 할지라도, 자유를 위해 거기에서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할 것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우리를 그 누구가가 소아병이라 부를지라도, 틀린 것은 그저 틀렸을 뿐이다.

“미얀마 쿠데타 규탄 시위 또 유혈 진압…누적 사망자 100 명 육박 (종합) ”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4021951084>

“[긴급진단] 미얀마 사태에 대한 고찰-단순한 반독재 민주화 시위로만 볼 수 있는가? ” :